



**소비자단가 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 난가 소폭 하락할 듯 -**

◆ 동향

산지난가가 상승세를 거듭하면서 소비자 단가도 10개기준 2,117원(4월 22일기준)으로 전년 대비 27.3%인상되었다. 이로서 4월초부터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지난달 난가는 두 차례 하락세를 보였다. 부화장의 운영중지로 병아리 공급량이 지난 2월 급감하였고, 여전히 병아리 공급량은 수요에 못 미치고 있어 농가에서 신계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로서 산란병아리와 중추단가는 사상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산란실용계 100만수에 대한 무관세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 지난 3월 화이트 품종이 13만수 수입되었으며, 5월중 추가적인 수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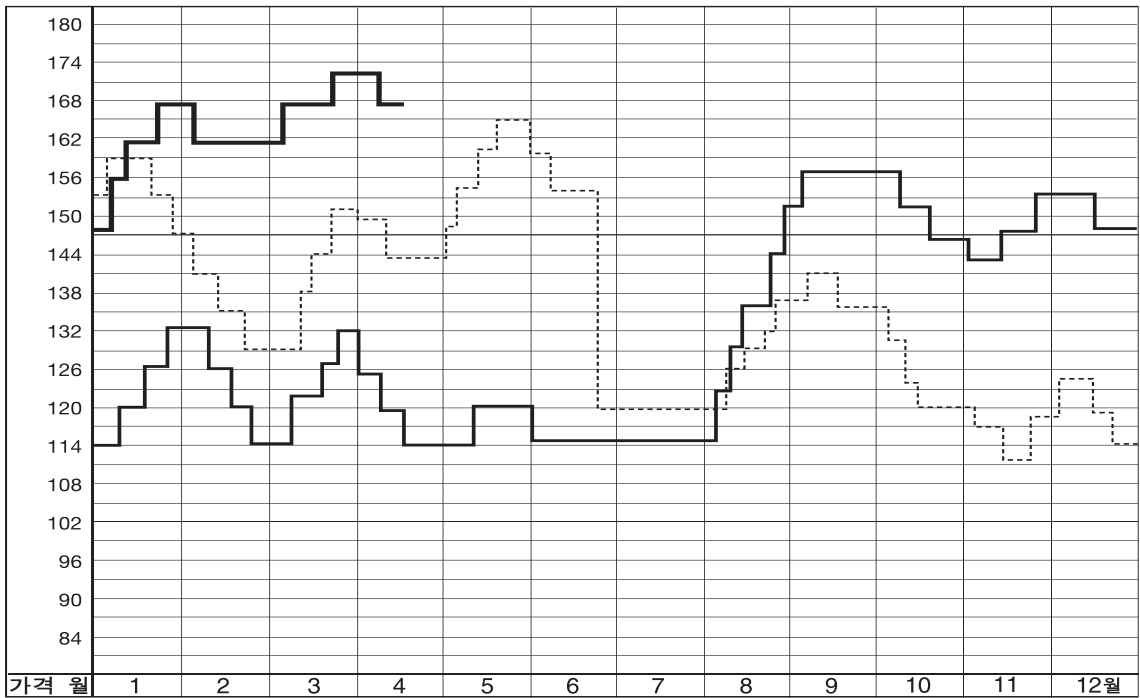
3월 종계입식수는 65,600수로 전년 대비 8.1%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산란실용계 분양수는 2,189천수로 전년 대비 33.7%감소하였다. 이처럼 병아리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노계 도태도 급감하였으며, 지난 2월까지 산란노계 도태수는 328만수로 전년 대비 25.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산지에서 노계거래단가가 1,800원 이상을 형성하는 등 전에 없던 강세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2월 육추사료 및 산란사료 생산량은 22,450톤, 154,606톤으로 각각 전년 대비 6.2%, 1.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중계사료 또한 3,421톤으로 전년 대비 27.2%하락하였으며, 이는 고병원성 AI로 살처분에 따른 급격한 감소로 판단된다.

◆ 전망

5월 난가는 약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계군 감소로 계란 생산량감소라는 공급측면과 소비자가 인상에 따른 소비위축이라는 측면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가의 상승폭이 워낙에 커 시세는 약보합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활절을 앞두고도 유통에 보유한 재고량이 많아 호재를 보이지 못했고, 소비자가 인상이 가정소비 및 단체급식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계란소비는 5월에도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란계 계란생산연장계군이 크게 늘고 있어 큰알은 이미 잉여물량이 상당량 생기고 있으며, 신계군이 감소한 만큼 노계군이 증가하면서 계란생산량도 차츰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계란생산량 감소가 난가 인상이라는 긍정적이라는 측면이 있으나 자율경쟁시장에서 가격 상승은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난가는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 원가이상의 시세를 유지하겠으나 소비감소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 2009.6.22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30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09-- 2010 - 2011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중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08	55,000	2,857	28.3	176.2	1,050	1,262
	2009	0	2,895	22.6	163.9	1,050	1,553
	2010	34,000	2,570	25.3	169.4	1,100	1,224
	2011	11,000	2,380	27.1	181.0	1,200	1,595
2	2008	35,928	2,787	26.9	169.8	1,100	1,287
	2009	48,300	2,894	20.1	144.5	1,050	1,374
	2010	33,896	2,338	23.9	156.4	1,150	1,246
	2011	0	1,659	22.5	154.6	1,336	1,629
3	2008	43,100	3,151	24.8	162.3	1,100	1,349
	2009	43,500	3,294	25.1	168.1	994	1,420
	2010	71,396	3,299	25.7	174.8	1,150	1,235
	2011	65,600	2,186			1,450	1,676
4	2008	0	3,469	29.6	170.2	1,100	1,283
	2009	109,368	2,808	27.2	164.5	917	1,455
	2010	56,000	3,178	28.1	169.4	1,122	1,176
	2011						
5	2008	91,100	3,460	27.7	149.3	1,122	1,237
	2009	0	2,519	26.5	157.5	850	1,597
	2010	52,000	2,606	27.8	165.7	956	1,179
	2011						
6	2008	95,500	3,046	28.3	145.8	1,100	1,202
	2009	71,300	2,956	26.8	156.2	892	1,448
	2010	0	2,419	29.2	154.8	900	1,152
	2011						

7	2008	30,500	2,486	26.3	148.3	1,022	824
	2009	60,500	3,077	29.3	146.7	1,100	1,255
	2010	29,700	3,202	25.9	156.9	928	1,200
	2011	33,000	2,465	27.2	157.6	939	1,150
8	2008	79,000	2,985	27.0	138.9	1,069	1,245
	2009	60,800	3,154	23.8	156.6	983	1,279
	2010	42,000	2,368	23.3	149.9	950	1,313
	2011						
9	2008	18,000	2,682	28.5	156.8	1,050	1,468
	2009	56,000	2,598	27.1	173.3	1,041	1,386
	2010	45,000	2,600	24.3	162.4	1,000	1,558
	2011						
10	2008	39,000	2,473	29.4	164.9	1,050	1,430
	2009	77,028	3,051	27.0	160.3	1,050	1,248
	2010	80,800	2,822	25.8	165.5	1,050	1,501
	2011						
11	2008	37,000	2,240	24.3	152.2	1,050	1,482
	2009	10,580	3,076	26.0	162.0	1,050	1,167
	2010	43,000	3,134	26.9	170.7	1,133	1,458
	2011						
12	2008	30,000	3,069	25.4	178.1	1,050	1,536
	2009	11,000	2,813	26.5	180.6	1,083	1,212
	2010	47,600	2,962	28.7	184.3	1,172	1,504
	2011						
계	2008	584,128	35,296	329.5	1,911.2	1,078	1,336
	2009	517,576	35,260	304.6	1,944.4	990	1,361
	2010	538,692	32,761	316.4	1,980.8	1,052	1,308
	2011						

※2008년 1월부터 중계입식수에 브라운너 포함.

※2008년 4월 산란중계는 32,600수 분양되었으나 AI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전량 살처분됨.

※2009년 11,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